

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복음의 목표"
성경	에베소서 6:10-20
일시	2018년 04월 29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이 응남 목사

♣ 성경말씀 (에베소서 4:11~12)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으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 요약 자료 ♣

복음의 목표 (에베소서 6:10-20)

1.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18)
2. 사탄 서밋(summit)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6:12)
 - 1) 통치자(정사)들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 2) 권세자들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 3)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 4)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13-20)
 - 1)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 2)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 3) 의의 호심경(홍배)을 붙여야 합니다.
 - 4)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 5)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 6)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녹취 자료 ♣

• 제가 금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서 오늘 새벽 아침 6시 30분에 휴스턴 공항에 다시 돌아왔다. 제가 어디를 갔다 왔

있다면 천국 밑에 999국이 있다. 그 곳이 바로 시애틀이다. 하나도 안 우스운가보다. ^^ 천국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곳이 천국인데 지상에서 그만큼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곳이 한 곳 있다고 한다. 그게 바로 999국인데 그 999국의 사람이 한 말이다. 그게 바로 시애틀이라고 한다. 시애틀은 5월부터 10월까지 너무 날씨가 좋다고 한다. 그래서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는 것 보다 밖에 나가서 자연을 구경하는 게 더 좋단다.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성도들이 가끔씩 빠진다고 한다. 왜? 999국을 구경하러 나가기 위해서란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999국 보다 더 좋은 천국의 축복을 사실은 저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누린다. 굳이 저는 밖에 안 나가도 예배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 어제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못 잤는데 1부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는데 힘이 나는 거다. 보통 잠을 안 자고 나면 막 졸립고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러지 않는가?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막 힘이 난다. 힘이 나.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거다. 아... 굉장히 막 하나님 이 또 은혜를 주신게 확실하구나.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육신도 건강이 회복 되는 것 같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림 없이 감사가 회복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혹시 연약한 육신가운데 질병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의 큰 힘을 얻으셔서 그 아픔이 오히려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다시 한 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한 번 생각해 보시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겠는가? 왜 복음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또 저에게는 '복음'이라고 한다. 제가 사실 28살 되던 해에 이 질문을 받았다. 한 분 목사님이... 전도자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했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라. 질문하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나도 대답을 하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다. 목사님은 청중을 향해서 메시지를 한 것뿐인데 저는 그 질문에 '내가 복음이 있는지?'를 찾아 본 거다. 근데 저는 복음이 뭔지도 몰랐다. 또 예수님이 전혀 기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에게 확인이 됐다. '아! 나에게 복음이 없구나.' 다시 말해서 교회 일은 많이 했지만... 기도도 많이 했지만... 예배도 많이 참석 했지만 나에게 진짜 복음... 기쁨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이 내게 생명으로 와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종교인'이었다. 천주교를 가나, 불교를 가나, 기독교를 가나, 무슬림을 가나 그냥 선택 된 종교에 내가 몸을 담았을 뿐이었던 거다. 진짜 제 자신에게 생명의 복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다. 그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음이다. 예?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다.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 하나님 만날 때 기쁨이 온다는 거다. 영원한 생명이 넘친다는 거다.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며 죽을 때까지 해결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가지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 됐는데 그 후손들이 전부 '원죄' 아래 놓여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왔는가? '사망'이 왔다. 이 사망의 왕 노릇하는 사단의 종이 되어 사람들이 '죽음' 앞에 별별별별 떨고 있다. 이 '죄'와 '사망'과 '죽음'을 초월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다. 바로 그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다. 전 그걸 알고 나서 너무너무 전 놀랐다. 심지어 제가 영적 사실을 잘 몰랐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사단과 영적 존재... 이 사

실을 모르면 여러분이 속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가깝게는 저의 아버지가... 저의 부모님이 평생 속아 살았다. 하나님도 계신지도 몰랐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과 귀신이 온 땅을 잡고 개인, 가정, 가문, 후대들을 멸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는 그 때 알았다.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28살 때의 이야기다. 그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그 때 들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가지게 된 거다. 그 때부터 고백했다. ‘내 평생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 지나온 세월들을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겠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겠다.’ 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각오가 됐고 결단과 결심이 됐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뭔지 ‘나의 복음’을 오늘 확정하셔야 된다. 나는 복음을 얼마큼 알고 있고 얼마큼 누리고 있으며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예수의 복음을 말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주일 강단의 제목이 뭔가? 복음을 주신 목표가 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왜 주셨겠는가? ‘복음의 목표.’ 하나님이 그냥 복음을 주신게 아니고 이 복음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이루라고 복음을 주셨다. 그 첫 째가 바로 뭐냐하면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복음을 주셨다는 거다. 자, 구약 성경에 요셉을 일컬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창세기 41장 38절에 기록하고 있다. “여호와와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애굽의 임금이었던 바로가 요셉을 보며 한 말이였다.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할 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랬겠는가? 그리고 모세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서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 했다. 웬지 아시는가? 모세의 얼굴에 여호와와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다. 40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 돌판을 들고 광야로 내려오는 모세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모세, 더 이상 오지마세요! 가까이 하기엔 당신이 너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놓일까봐 오지 말라.”고 거리를 항상 두라고 그랬다. 그게 바로 여호와와 영광인 성령의 역사였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보지 않는가?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제 불러갈... 하나님이 불러갈 날이 준비 돼 있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쫓아간다. 쫓아가면서 구하는게 하나 있었다. 뭔가? “선생님의 갑옷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다. 그러면 지금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심지어 사도바울과 초대교회가 무엇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말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었다. 그게 바로 뭔가? ‘복음’이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신에 감동 되고 진짜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아시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한다. 여기 “끝으로”라고 되어 있다. 이전 편지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내용이다.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너를 태어나기 전, 창세전부터 준비 돼 있다.’ ‘너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 준비했어. 그리고 너를 과거, 현재, 미래, 죄와 사단과 죽음, 지옥으로부터 건져 낼 복음을...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 복음을 지금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이건 에베소 사람인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주셨어.’라고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다. 그리고 각 교회에 직분을 세워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 구원의 이유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다가 마지막 6장에 가서 “끝으로”라는 단어를 딱 썼다. 마지막, 이제 편지를 마치려고 할 때에 중요한 메시지를 딱 주었다. 그게 뭔지 아시는가? “주 안에서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현주소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는가? “주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완전 다르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돈’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성공’과 ‘세상’ 중심으로 열심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틀린 각인들’을 지금도 새기고 있다. 이게 사실은 ‘헛된 성공’이고 ‘헛된 물질’, ‘헛된 자아’이다. 우리 원래 인간이 그게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틀린 그런 자아에서... 틀린 물질관에서... 틀린 이 세상과 그 목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런 주소로 바뀌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힘의 능력’이 있다. 그 힘의 능력이 바로 뭔가?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께서 무엇을?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신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약속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순절 날이 임함에 바람 같은 불같은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모든 구하는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다 임했던 말이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탄생이었다. 오늘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뭐가 필요한가? ‘주의 은혜’와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현장에 직장과 학업과 삶을 시작하기 전에... 심지어 문제와 사건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이 뭐부터 필요한가? 여러분의 현주소와 그 힘을 회복하셔야 된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6장, “끝으로...”라고 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이게 바로... 복음의 목표는 첫 째, 성령의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으셔야 된다. 힘 얻으면... 영적인 힘 생기면 마음과 생각이 치유 받고 육신도 치유가 된다. 이게 영적인 원리다. 이게. 우리의 육신이 아픈게 육신의 아픔으로 끝나는데... 약을 먹으면 임시적으론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마음은 평안하지 않다. 약을 먹는다고 마음이 평안 한 것은 아니다. 또 무슨 마음이 평안한 약을 또 취하고 혹시 쉬면 마음은 혹시 평안할 수 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치유가 안 된다. 순서가 뭔가?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영적 원리’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힘 얻으시고 마음과 생각에 힘 얻으시고 심지어 육신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 했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다는 거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주신 두 번째 이유

가 또 뭐냐하면... 여러분,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싸움'의 현장이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지금 비웃고 있다. 우리를. 왜? 우리는 엉뚱한 싸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싸움도 육신적인 싸움만 한다. 세상도 지금 육신적인 것 가지고 싸운다. 이익 가지고 서로 뜯어 먹으려고 난리다. 난리.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리, 명예, 육신적인 것... 이 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 그 뒤에서 사단이 팔짱끼고 비웃고 있다. 진짜 구원 받은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자가 누군데? 그게 누군가? 혈과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상대가 틀리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사람이 아니다. 육신이 아니다. 보이는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배후의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능탈할 수 없겠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라고 하셨는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그것을 잘 알았던 사도바울이 끝으로 복음을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삼은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다? 바로 '영적 서밋' 곧 '사탄의 서밋'과 싸우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다는 거다. 그러면 사탄의 서밋이 누군가? 그게 바로 오늘 6장 12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한다. 같이 읽겠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라고 했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누군가? '사탄', '마귀'다. 여러분 개인이 누구에게 잡혀 있는가? 가정이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는가? 우리 후대들이 지금 틀린 세상 문화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 되고 있다. 그걸 지금 누가 계속 뿌리는지 아시는가? '문화'를 통해, 세상의 좋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틀린 나'를 자꾸 각인하고 있다. '다른 나'를 자꾸 각인, 뿌리, 체질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이 "너, 왜 그러니? 똑바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지적해도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뭘지 아시는가? 그 태도가 어디서 왔는가? 그 모습의 근원이 어디인가? 전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세상의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을 쫓아가는 '육신 중심'이다. 그걸 뿌려 놓은게 누군지 아시는가? 사탄이 '함정'을 깔아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울무'에 걸리도록 짝~ 좋은 걸로 짝~ 유혹해 놨단 말이다. 여러분, 돼지 잡을 때 혹시 어떻게 잡는지 아시는가? 돼지? 저~기 돼지가 여기 앞에 도살장까지 끌려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뭘가? 돼지가 좋아하는 땅콩을 그 눈 앞에도가 짝~ 깔아놓는 거다. 그러면 이 돼지가 그 냄새... 아주 얼마나 콧구멍이 큰가? 이 큰~ 콧구멍으로 쿵쿵쿵쿵 하면서 그 땅콩을 주워먹고 온다. 이제 하나씩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는가? 쿵쿵쿵쿵 하고 또 앞에 땅콩이 있다. 계속 졸졸졸졸졸졸 좇아 오는거다. 그러다가 요즘에 오면 주둥이를 잡는다. 그리곤 칼로... 망치로... 해머로 여기 급소를 때려버리는 거다. 군대 있을 때 시골에서 그 힘 좋은 이 군인이 얼마나 많이 그 소와 또 돼지를 잡았는지... 뭘 이렇게 군대에서 잔치만 벌여지면 이 친구를 부른다. '네가 와서 해머로 이 소쯤 잡아달라.'면서... '이거 지금 돼지 한 마리 잡아달라.'면서... 근데 이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이게 때렸는데 잘 못 맞았다. 그러가지고 이게 급소를 맞아서 이게 정통으로 이게 즉사를 시켜야 되는데 이 옆을 맞춘거다. 그러니까 '돼지 먹 따는 소리'라고 짹~ 짹~ 하는데 온 그냥 군대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여러분 잘 못 잡으면 그런다. 그러니까 제대로 잡으려면 급소를 찔러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마귀가 걸어 놓은 함정과 틀과

울무에 지금 졸졸졸 좇아 오다가 결국은 우리가 잡혔단 말이다. 우리가 속고 살았단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지금 멸망의 함정, 틀, 울무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을 꺾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딸이 이상해요.' '아들이 이상해요.'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남편이 이상해요.' 뭘, '부인이 이상해요.' 다 틀리게 보는 거다. 남편을 그렇게 만드게 누군가? 아내를 그렇게 만드게 누군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게 누군가?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귀신이 그렇게 우리를 평생 속였던 거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그 나를 속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속인 그 원수 마귀를 안 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를 갈고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가지고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할 것은 하나 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라. 권세를 쓰시란 말이다. 여러분은 누군데? 하나님 자녀데?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기도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 해지고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며 흑암이 떠나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고 하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 할 때 통치자들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자들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결박된단 말이다. 그 때부터 문이 열린다. 그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걸 모르고 여러분이 계속 지금 뭘가? 속고 있는 거다. 왜 복음을 주셨다고 했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함이 첫 째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계획이다. 두 번째는 뭘가? 이 대적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 흑암을 꺾지 않으면 절대 가정과 후대와 현장을 못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려면 해야 될 게 있다. 싸우려면 그냥 나가면 안 된다. 뭘 해야 되나?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무장을 하셔야 된다. 그제... 세 번째가 바로 뭘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란 말이다. 싸우는 군인이 맨몸으로 싸울 수가 없잖은가? 어? 반드시 싸우는 군인은 뭘 하는가? 완전군장이라는 것이 있다. '완전군장.' 머리부터 발 끝까지 모든 장비...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한참 싸워야 되기 때문에 모포를 포함하여서 모든 뭘 반함을 포함해서 모든 짐을 다 챙겨야 된다. 그걸 몇 분 안에? 5분 안에... 10분 안에 챙겨가지고 튀어 나가야 된다. 여러분이 무장을 해야 된다. 언제 어느때 사단이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무장하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첫 째 한번 보겠는가? 여기 한 번... 이 14절...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시라. 자, 같이 한 번 읽어보겠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선다는 말이 뭘가? 선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말이다. 반대로 넘어선다는 말은 뭘가? 패배한다는 말이다.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돼 있다. 입이라고 돼 있다. 입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췌길래? 깡다구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아시는가? 여러분, 얼마나...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 있는게 아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은... 상대가 안 된다. 왜? 마귀가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을 그냥 단박에 쓰러트렸단 말이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사단이... 전부 '나', '물질', '세상', '성공'에 다 걸려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문화가 되어 있는데... 그제 전통이 돼 있는데... 그제 부모, 자식, 후대에게 계속 전달 되고 있는데... 그제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와 그 꾀계를 이겨낼 수 있는가?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제 복음이다. 그 복

음 가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싸움의 대상이 사람 아니다. 영적 존재다. 그게 바로 사단이고 마귀고 그 타락한 천사다. 근데 이 타락한 천사는 예수 이름 이외에는 꺾이지 않는다. 여러분, 착하다고 봐주는지 아시는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봐주는줄 아시는가? 여러분이 뭐 자식 잘 키웠다고 봐주는줄 아시는가? 그걸로... 사단을 이기는 것은 없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하면 딱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벌벌 떠다. 여러분은 능력 없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떠는 거다. 그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 끝까지 뭘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대로 한 번 읽어 보겠다. 자, 14절을 같이 한 번 읽어본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제일 먼저 뭐 하는가? 여러분? 탁 튀어나가기 전에 벨트부터 딱 맨다. 바지 입지 않는가? 그죠? 여러분, 바지는 맨 나중에 입는 사람 있는가? 그럼 이상하다. 머리... 투구부터 쓰고 나가는가? 아니다. 제일 뭐냐? 바지부터 입는다. 바지 입을 때 먼저 뭐 하는가? 벨트를 탁 맨다. 이 허리는 뭘 얘기하는지 아는가? 힘의 근원이다. 힘은 어디서 오는가? 허리에서 온다. 이 허리에 뭘 돌려야 되냐? 벨트가 있다. 그 벨트의 이름이 뭐지 아는가? ‘진리’라는 벨트다. 진리는 곧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누구 밖에 없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있던 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띠로 여러분 허리를 단단히 조이란 말이다. 그리고 옷을 딱 입는다. 입고 그냥 옷만 입지 않고 거기다가 뭘 입는가? 방탄조끼를 입는다. 그게 바로 ‘호심경’이라는 거다. 그 나를... 가슴과 배와 안에 있는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카바 해주는 그 방패가 있다. 몸을... 나를 보호해 주는거. 그걸 여긴 뭐냐? ‘호심경’이라고 돼 있다. 지킬 ‘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 생각을 딱... 몸을 딱 지키는 갑옷 같은거 있던 말이다. 그걸 딱 옷을 입고 거기다가 딱 조끼를 입는거다. 그러니까 갑옷을 딱 입는다. 자, 이게 여러분 그 호심경의 이름이 뭐라고 그러는가?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런다. ‘의’는 누구밖에 없는가? 그리스도 이 외에는 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한 의는 하나님 밖에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가슴을 탁 보호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말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다. 자, 세 번째 그 밑에 인제 보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신는가? 신발을 신는 거다. 자, 옷을 다 입었다. 그리곤 뭘 신는가? 신발을 신는 거다. 자, 한 번 읽어보겠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다. 신발 신으라. 신발. 이 평안의 복음은 뭐냐? 평화라고 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평화... 화평케 하셨단 말이다.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 머문 곳에 뭘로 화목케 하는가? 부부간에 뭘로 화목케 하는가? 부모와 자식 간에 뭘로 화목되는가? 직원과... 부하직원과 뭘로 화목 되는가? 세상과 하나님과 뭘로 화목 될 수 있는가? 화목 되는 건 하나 밖에 없다. 그리스도로 밖에는 화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야 되고 남편이 복음 받아야 되는 거다. 부모가 은혜의 복음 받아야 되고 자녀가 은혜의 복음 받아야 되는 거다. 목회자와 성도가 그리스도도 하나가 안 되면 계속 찌그락 찌그락... 갈등할 수밖에 없다. 교회가 왜 싸우는지 아시는가?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가 왜 싸우는지 아시는가?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사의 생각, 중직자의 생각, 성도의 생각이 다 틀리니까. 복음은 하나다. 목사도 그리스도 앞

에 서야 되고, 중직자도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고, 성도도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고... ‘화평케’의 복음은 하나 밖에 없다. 여기에 ‘평안의 복음’은 하나 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신발을 탁 신으라는 거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겠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다 입었다. 바지도 입고 벨트도 맨다. 위에 옷도 입고 방탄조끼... 조끼도 입었다. 그리고 신발, 평안의 신발도 신었다. 그리고 나갈 때 뭘 들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이라는 ‘방패’... 이게 믿음으로 뭘했다? 모든 능력 중에 믿음이 어마어마하다. 믿음은 뭘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 돼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렇게 돼 있다. “믿음을 굳게해라.”라고 돼 있다.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믿음이 바로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이다. 이 대적이 뭐하는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불화살을 쏜다는 거다. 불화살이 뭐냐? 불화살은 다르게 아니고 사람들의 욕심과 정욕을 불타오르게 하는 온갖 격렬한 시험들을 불화살이라고 한다. 우리가 시험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사람에게서... 물질에게서... 환경에서... 사단이 뿌려놓은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가? 그 시험을 뭘로 이겨라? 믿음으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장해야 된다. 한 말씀, 한 말씀 따라서 나누어 무장을 시키시라. 지금. 그뿐만 아니고 이제 나가야 되지 않는가? 투구는 쥘 나중에... 이 머리, 헬멧은 제일 나중에 쓰는거다. 군대 안 가보셨는가? 제가 볼 땐 여자분들도 우리 혹시 군대를 보내봐야 되겠다. 한 3개월 병영체험을 해보시면... 아침에 6시에 기상하고 밤 10시에 취침하고 불침번 세우고 그리고 뭐 인원 점검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참 우리 여성 성도들이 많이 좀 규모가 잡힐텐데... 그게 조금 아쉽다. 하지만 영적 체험을 하셔야... 영적 병영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어디서?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적 병영에 지금 입소를 하셨다. 오늘 예배 시간에 무장을 지금 하라고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구원의 뭘 써라? 투구를 딱... 헬멧을 쓰는 거다. 이 투구의 이름이 뭐냐? 헬멧의 이름을 성경은 ‘구원’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거기에는... 5장 8절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그렇게 돼 있다. 머리에 구원과 그 소망의 투구를 딱 쓰라는 거다. 소망이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다. 분명히 될거라는 소망이 있으면 중단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 ‘해도 되냐?’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게 응답이 되냐?’ 하면 기도 계속 할 수 있는가? ‘기도 반드시 응답 될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계속 할 수 있다. ‘애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할거야.’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시던지 해답을 줄거다.’ 그러면 구원과 그 소망이 있다면 중단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한다. 절대 하지 않는다. 내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을 이 아이가 아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거다. 그 아이를 절대 포기 하지 않는거다. 그래서 구원과 그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딱 쓰는거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냐? 이제 는 나가기 전에 딱 헬멧 쓰고 이제 뭐 방어만 하는가? 이제? 맨날 우리는 이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맞고 그냥... 맨날 방어만 하는가? 그러지 않았는가? 싸우려면 뭐가 있어? 투구가 있어야 되잖는가? 그 때 마지막에 들고 가야 될게 하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구원의 투구 쓴 다음에 여러분의 손에... 오른팔잡이는 오른 손에 왼손잡이는 왼 팔에... 옛날엔 뭘 방패는 왼손... 항상 이리더라. 오른손... 이걸 오른손잡이를 향한 그림이란 거다. 어떤 사람은 왼손이 더 잘 쓰단 말이다. 그러면 오른손에다가 뭘 씌워야 되냐? 이게 딱 방패를 씌우고 왼손에다가 칼을 들어야지.

이 왼손으로 싸우는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른손잡이인가? 그럼 왼손에 방패를 들고... 여러분이 왼손잡이인가? 오른손에 다가 방패 들고 왼손 가지고 그냥... 이게 주 특기란 말이다. 주 특기. 아시겠는가? 말씀의 주 특기가 있잖은가? 거기에다 뭘 잡아라? 무기를 잡아라. 그 무기의 이름이 뭘지 아는가? '성령의 검' 이란다. 그게 바로 뭐라고 돼 있는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나를 살리는 말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말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 그래서 말씀정리를 하라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말씀이 정리 돼... 날 선 나의 말씀을 정리하라는 거다. 십자가를 그릴 때 한 요절 속에... 그게 좌우의 날 선 검이란 거다. 여러분, 칼하고 검하고 차이가 뭔가? 칼. 주방에서 쓰는 칼이 있다. 그죠? 주방에서 쓰는 칼은 날이 어디로 돼 있는가? 밑으로만 있다. 밑으로. 위에도 칼 서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친다. 그래서 칼은 날이 한 쪽밖에 없다. 근데 검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한 쪽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는 뺐는데 이렇게 하면 또 무디지 않나? 양되잖나? 그래서 양쪽에 날이 있다. 그래서 휘두르면 다 그냥 베지는거다. 그 검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와 시험을... 마귀 앞에서 시험 받을 때 뭘 가지고 이기셨는가? 광양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공생애를 시작 하기 전에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뭘 가지고 싸웠는가? 마귀와? "사람이 사는 것은 떡과 양식으로 사는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거다." 결국은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예배 때의 말씀. 또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날 선 검같이 계속 가시라. 그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는 복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정리하시라. 그게 날이 설 때까지. 그게 익숙해질때까지.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될 때까지.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한다. 그래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나에게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날을 세우시라. 언제까지? 싸울 때까지.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는다.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결론으로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 록 하겠다. 이 18절로 20절까지에서 '항상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해주신다. 여러분이 항상 할 것... 결론이다. 자, 18절을 같이 읽겠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개 나왔죠? 그죠? 첫 째는 뭐라고 돼 있는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다. 그냥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거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나중에 한 번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보시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라고 되어 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 분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단다.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잘 아신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불신자 배경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기존 신자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배경에서 기도 해주는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전 그게 늘~ 저에게는... '누구는 참...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부모... 하~ 참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 나는 불신자에서 돌아와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 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스스로만 신앙생활 하고 버티려고 하니깐 너무나

힘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걸 보게 됐다. '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불신자일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네!' 그게 누군가?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 해주신다는 거다. '아~ 그랬구나!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혼자 아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라고 되어 있다. 성령과 함께 기도 하라는 거다. 자, 두 번째 항상 하라는 게 뭐 있는가?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애써야 된다. 여러분이, 어... 기도 한다 하면서 가만히... 안된다. 뭐 하는가? 집중의 시간을 만들라는 거다. 힘 쓰는 시간을 만들어야지. 어이 뭐 누워서 막 감이 입으로 딱~ 딱~ 떨어지게... 그러면 좋겠죠? 안 그렇다. 답을 얻었으면 이제 뭔가? 도전하는 거다. 싸우는 거다. 힘 쓰는 거다. 답이 맞으니까. 결론이 났으니까. 뭐 해야 되나? **"항상 힘쓰라"** 했던 말이다. 그래서 시간을 만드시라. 그리고 '집중의 시간'을 만드시라. 아침도 좋고 밤도 좋다. '나만의 영적 시간', '서밋 시간'을 만들란 말이다. 핑계 대지 말라. 애가 어떻구. 뭐... 남편이 안 도와주구. 뭐... 집안의 애들이 엉망이구. 그거 다 핑계다. 기도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이란 말이다. 그러지 말고 시간 만드시라. 힘 쓰려고 애를 쓰시라. 그러면 분위기 살살살 바뀐다. 처음에는 잘 안 된다. 근데 힘 쓰고 애 쓰다 보면 영적 분위기 바뀐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한다. 같이 읽겠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돼 있다. 여러분, 항상 해야 될게 뭔가? '전도'다. 전도를 항상 생각하고 전도를 위하여 전도자를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거다. 그래서 그 전도자의 입을 통해 복음의 비밀이 계속 전파 될 때 흑암이 묶이고 구원 받을 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여러분이 항상 할 것 세 가지. 기도하시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힘 쓰시라. 그리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로 쓰임 받고 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항상 하라고 말씀... 끝으로 말씀을 주셨다. 오늘 복음을 주신 중요한 목표... 이 언약 가지고 한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	
담임목사:	이 응남 목사
교육목사:	황 병철 목사
전도사:	권 예나 전도사
연락처:	(713) 907-0854
이메일:	rutc-christ@hotmail.com
자료작성: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